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¹⁹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나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²⁰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²¹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²²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출18:19-22)

신성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는 사람의 의지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신성으로부터 간접적

인 방법으로 오는 진리는 사람의 이해력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의지와 이해력이 하나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의지가 선한 것을 원하고, 이해력이 진리를 이용해 선한 것을 인정해야 결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서로 결합할 때 주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고 그것들이 결합하지 않을 때는 주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다. (천국의 비밀 7056:3, 이순철 역) *The truth proceeding immediately from the Divine enters into the will of man, this is its way; but the truth which proceeds mediately from the Divine enters into the understanding of man; and therefore conjunction cannot be effected unless the will and the understanding act as a one, that is, unless the will wills good, and the understanding confirms it by truth. When therefore there is conjunction, then the Lord appears as present, and his presence is perceived; but when there is no conjunction, then the Lord is as it were absent; (AC.7056:3)*

출18:19-22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생명인 선과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올 때는 하나로 오지만 사람이 받을 때는 선 따로 진리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사람의 의지 안으로 들어오고요, 진리는 이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는 선을 받는 그릇이고, 이성은 진리를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의지가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면 진리와 선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유감스럽게도 이성과 의지가 따로 움직입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머리로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의지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지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진리와 정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과 진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말씀에서는 모세 혼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선이 없는 진리를 붙들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상태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

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선은 왜 함께 있어야 할까요? 영적인 모든 능력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고 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같은 분이신데, 진리는 불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성장하게 만드는 힘은 빛이 아니라 빛이 담고 있는 열기에서 나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선에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다 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선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리는 선 그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와 연결 짓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주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인데, 이 진리는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안에 선이 들어있는 진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 없는 진리는 주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겨울에 냉랭한 태양 빛을 통해서 태양의 왕성한 생명력을 잘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선이 들어있지 않은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내면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선을 동반한 진리가 우리 겉 사람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의지 가운데 있는 선과 이성 가운데 있는 진리가 서로 만나 결합하는 것을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리와 선이 서로 만나 결합할 때, 거기서 나오는 진리, 즉 선을 동반한 진리가 비로소 주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 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통해 태양의 존재를 느끼는 것과 같고요, 식물이 햇볕을 받아 왕성하게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과 같은 것

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선, 또는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겉 사람이 변합니다. 겉 사람은 보통 세상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망, 세상의 명예와 부,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게 겉 사람인데, 그 겉 사람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진리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선에 대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뿐인 진리는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열기 있는 빛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선을 동반한 진리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과정은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의 상태로 구별됩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기 전의 진리는 선 없는 진리의 상태이고,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는 믿는데, 의지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모세와 이드로가 만난 다음의 진리는 비로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이

출18:19-22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아니라 삶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 그것을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기 전의 상태와 후의 상태는 극명하게 구별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드로와 모세가 만난 다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말을 들으라, 둘째는 내가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셋째는 백성들의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말입니다.

이드로가 말한 첫 번째는 ‘내 말을 들으라’입니다. 말씀에서 ‘듣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는 것은 진리가 선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진리를 나타내고, 이드로는 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선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와 선이 결합해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진리가 앞장서서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즉 진리가 선을 향해 우리를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진리와 선이 결합한 다음에는 이제 선이 앞에 나서고, 진리가 선에 복종, 뒤를 따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배웠던 것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대해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진리를 나타내고, 에서는 선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은 진리보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불과 같고, 진리는 그 불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이 진리보다 앞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표상하는 야곱이 선을 표상하는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역할을 할까요? 다시 말하면, 선이 앞장을 서야 하는데, 왜 진리가 앞장 설까요? 처음 거듭날 때는 우리에게 있는 선이나 사랑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 사실은 자아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의도가 들어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이나 사랑을 따라가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듭날 때는 마음속에서 선한 애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진리에 비춰봐야 합니다. 진리라는 거울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애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진리가 앞장을 서고, 선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진리와 선이 결합한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모두 진리에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선한 것을 기뻐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과는 달리 선이 앞장을 서고, 진리는 선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드로는 모세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선이 앞장을 서고, 진리는 선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드로가 두 번째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내린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진리는 이제까지 배운 진리와는 다른 진리입니다. 주님의 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 읽고, 교리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한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는 그 안에 선이 들어있으며,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지 속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성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한 다음에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가 이성 가운데로 흘러들어

출18:19-22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웁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진리, 즉 그 속에 선이 들어있는 진리를 이제는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가 이제는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에서 직접 나오는 진리이면서 동시에 간접적인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내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드로의 방침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진리이구요, 그래서 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그런 진리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는 방침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시는 진리이면서, 또한 간접적인 진리이므로 중재의 역할을 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모세가 백성들의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온다는 것은 진짜 백성들의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중재하는 진리가 주님과 우리 신앙인들을 중간에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중재하는 진리는 앞으로 말씀드릴 천부장, 백부장 등으로 표현되는 지도자들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지혜, 즉 주님의 사랑이 담긴 지혜를 이제는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²⁰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 ‘율례와 법도’는 주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갈 길’은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드로가 또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²¹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서 백성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를 고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백성은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진리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일을 할 때 세우는 계획, 일하는 방법, 논리, 이런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서 지도자를 고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가운데 으뜸이 되는 진리, 이를테면 삶의 원칙이나 원리 같은 것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한 삶의 원리는 진리이면서 그 안에 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과 신앙인들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재자로서의 진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선 안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능력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능력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자는 선을 동반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재하는 진리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질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불의한 이익은 한마디로 그 안에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이웃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진리, 즉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거짓 없는 순수한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드로의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선과 진리가 우리 내면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으로부터 중재하는 진리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중재하는 진리는 선을 동반하는 진리이고, 그러므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재하는 진리는 거짓

출18:19-22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없는 순수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들을 본문에서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천부장은 선과 결합한 진리로부터 나오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진리입니다. 천부장이니까요. 그리고 백부장은 두 번째 높은 단계의 진리이며, 십부장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십부장은 무엇일까요? 오십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진리를 가장 낮은 단계의 진리와 연결시키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성의 흐름은 첫 번째 단계의 진리를 통해 두 번째 단계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단계의 진리 안에 들어올 때, 그 흐름이 완성됩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가장 낮은 차원의 이해력, 즉 감각을 통해 선과 진리이신 주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십부장으로 표현되는 중재하는 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첫 번째,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표현되는

진리는 선에 가까운 진리이며, 그러므로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반면에 십부장은 선이 거의 없는 자연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연결하는 것이 오십부장입니다. 그것은 선과 진리가 함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표현되는 선은 오십부장이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진리를 통해 십부장으로 표현되는 자연적 진리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의 진리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그것에 대해 성(聖) 문서, 즉 주님이 스베텐보리를 통해 계시하신 문서들(Writings)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첫 번째 진리인 천부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에 가까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의 목적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진리인 천부장은 아마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과 관련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리인 백부장은 어떤 진리일까요? 그것은 그 선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과 관련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가장 맞을 것인가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따지지 않습니까? A라는 대안이 있고, B라는 대안이 있고, C라는 대안이 있는데, 어떤 것은 자기의 이익에 맞춰진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주님께 맞춰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진리, 즉 백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진리인 십 부장은 목적과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자신의 삶, 또는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십부

장은 주님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각 사람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돕는 진리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결과에 연결시키는 진리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진리를 보내주실 때, 대단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을 단계별로 묶으시고요, 일의 단계에 따라 거기에 맞는 단계의 진리를 적용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와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는 십 부장에 해당되는 진리를 하나의 원칙으로 보내주시구요, 또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고민할 때는 백부장에 해당되는 진리를 원칙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이해입니다. 말씀의 영적인 부분은 추상적이고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정도까지는 제게 알려주셨다 믿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드로는

²²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

출18:19-22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는 마치 일을 분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모세로 표상되는 진리, 즉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로부터 모든 중재하는 진리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조율하는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작은 지혜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의 상식이나 도리 또는 개인의 생각에 맡겨진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설마 삶의 세세한 일들까지 주님께서 관여하시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을 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

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삶의 가장 낮고 작은 부분에까지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재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그들의 한없이 무딘 감각으로 주님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드로는 모세와 그의 동역자들이 일을 함께 담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진리와 그것을 중재하는 진리들이 협력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동역자들이 이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이 일이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부장이나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과 같은 중재하는 진리들 없이 모세 혼자서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쉽다는 말은 중재하는 진리가 모세로 표상되는 내적 진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도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이 주님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까지 일일이 관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큰 틀에서 역사하시고, 자잘한 일들은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큰 틀에서만 섭리하시고 작은 일들은 우리에게, 또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리가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가장 순수한 진리인 선을 동반한 진리로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 말씀드린 중재하는 진리, 즉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표상되는 진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중재하는 진리를 통해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먼저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선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선이 있는 사람에게 진리로 또 오신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은 먼저 진리로 오세요. 그래야 주님을 믿게 되니까요, 그러나 신앙이 생긴 다음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선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이 있어야 그 선이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끌어당겨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주님과 이웃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1:18)

아멘

2016-10-30(D1)

이순철 목사